

한형조 무문관 탐방

27

운문의 품막대기 ㊸

운문의 선은 천자(天子)의 품격이 있다고 한다. 그는 선의 깊이뿐만 아니라 언어를 다루는 솜씨도 저만큼 뛰어났다. (한 문호를 열려면 최소한 이 두 가지를 갖추어야 한다. 물론 默照를 주로 하는 曹洞은 좀 다르겠지만) 운문은 역설적으로 그 제주를 부끄러워했고 그래서 지극히 아꼈다. 운문 선의 특징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그 유명한 일차관(一字關)이다. 누가 묻거나 입을 떼면 구구한 설명 없이 단 한 글자로 응수한다. 짧게 끊어치거나 한 마디는 즉각 산해대지를 삼켜버린다. 가령 이런 것이다. "무엇이 올바른 진리의 눈(正法眼)입니까?" "보(普)!" (올바른 진리의 눈)이란 교학에 대한 선의 진리를 가리킨다. 요컨대 선의 핵심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운문은 삼라만상이 부처요, 두두물물(頭頭物物)이 선의 진수라고 응답했다. 어디에나 널려 있다는 것(普)은 결국 아무데도 없다는 말과 같다. 그렇더라도 운문 당시는 도량(道場)을 짓고 이리 사람을 모았으니 어쨌든 그 길을 알고 있지 않았는가, 그곳은 대체 어디인가라고 묻자 운문은 또 "친(親)!"이라고 내질렀다. 몸소 찾고 홀로 보라는 매정한 권고였다. 운문의 일차관은 그의 기질과 품격을 단적으로 알려 주고 있다.



그림·이준석

하기도 했다. 운문은 지금 부처란 것이 바로 그 더럽고 지저분한 물건이라고 잘라 말하고 있다. 사람들은 이 공안이 너무 지독하다고 여겨선지 좀 순화해서 읽으려고 한다. 이를테면 부처님께서 앞의 일차관에서 말한 대로 삼라만상 두두물물에 편만해 계시니 당연히 통처럼 친하고 지저분한 물건에도 있을 것이라는 일종의 범신론을 떠올리는 것이다. 그런 해석을 도와주는 정거로 장자(莊子)를 들기도 한다. 동쪽자(東郭子)가 장자에게 도(道)가 어디 있느냐고 묻자, 장자는 "없는데가 없다"고 대답했다. 좀 구체적으로 한정해 달라고 하자, 개미나 벌레에 있다고 했다. 신성한 도가 어찌 그런 하찮은 물건에 있다고 의아해하자 장자는 등거나 벽돌 조각에도 있다고 했다. 어찌 점점 더 비천한 물건으로 내려가느냐고 인상을 찌푸리자 장자는 마침내 "똥오줌에도 있다!"고 말해 질문자의 입을 막아버렸다. 미리 짚어두지만 장자가 말한 똥오줌은 지금 운문의 똥오줌과는 의미와 맥락이 다르다. 장자는 자연의 유기체 시스템 안에서 모든 것은 동등한 자격과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했다. 유기체법을 연상하면 좋겠다. 인본은 개소와 과일을 키우는 거름이 된다. 그런데 어쩌서

지혜롭기가 으뜸이었던 사리불존자에게 한 젊은이가 찾아 왔다. 건장하고 준수하게 생긴 젊은이였는데 자신도 수도를 하여 법을 깨달고 싶다는 것이었다. 사리불존자는 젊은이를 보고 생각하기를 이 사람은 용모가 훌륭한 것으로 보아 자기 몸체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집착도 많을 것이라고 판단하고는 구상관(九想觀)을 닦게 하여야겠다고 생각했다. 구상관은 몸을 자기라고 여겨 애착하고 탐하는 어리석음을 없애주기 위하여 몸을 더럽고 추한 것이라고 관찰하는 수행법이다.

구상관(九想觀)

우리나라에서는 이 수행법을 사용하는 예가 거의 없다시피하지만 미얀마나 태국 같은 남방불교권에서는 지금도 많이 행해지고 있다. 부처님 당시엔 인도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땅에 묻거나 화장하는 것 외에 들끓어 버리거나 물에 던지기도 했다. 사리불존자는 우선 젊은이를 들끓어 데리고 나가 방금 죽은 시체를 찾아 그 앞에 앉도록 시켰다. 그러다음 이제부터 시체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집중적으로 관찰할 후 자리를 옮겨 아홉 단계로 나누어 계속해서 상상해 보라고 하였다. 젊은이는 사리불존자가 시키는대로 실천하였다. 눈으로 본 더럽고 가오름 두렵고 허무한 시체의 변화된 모습을 조용한 곳에 가서 차례로 떠올려

法數로 배우는 불교

<37>



◇원형신님 작 '달마가 전한 뜻은...'

보았다. 시체가 곡식의 자루처럼 통통 부은 모양 떠올리는 창상(瘡想), 가족과 살이 문드러지는 모양을 떠올리는 괴상(壞想), 피와 섞은 물이 흐르는 모양을 떠올리는 혈도상(血塗想), 모래가 생기고 실집이 흩어지는 모양을 떠올리는 농란상(農欄想), 푸르딩딩하게 피고름이 섞이고 영긴 모양을 떠올리는 청어상(靑魚想), 찌든 시체를 세나 짐승이 파먹는 모양을 떠올리는 담상(檀想), 몸이 분해되어 흩어지는 모양을 떠올리는 산상(散想), 흰배만 덩구는 모

몸의 9가지 더러운 모양 살펴 육신 허망함 일깨우는 수행법

양을 떠올리는 골상(骨想), 불에 타고 흩어지고 바람에 날려간 모양을 떠올리는 소상(燒想)이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젊은이가 사리불존자의 지시대로 구상관을 닦은 결과에 대한 문제였다. 젊은이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 관법을 닦았더니 몸에 대한 집착을 여의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오히려 마음이 어지럽

고 혼란해지기만 하는 것이었다. 젊은이는 아침에 사리불존자를 찾아가 자신이 그 수행을 하는 동안 마음이 평화롭기 보다는 더욱 어지러워진다고 말하였다. 사리불존자는 사랑하고 애착하던 몸을 시체처럼 부정하고 위망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방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이상하다고 말하면서 젊은이

를 부처님께 인도하였다. 사리불존자의 말을 들은 부처님은 젊은이를 보고 이 사람이 구상관과 같은 부정관(不淨觀)을 닦아서 안된다고 말씀하셨다. 그 까닭은 젊은이가 전생을 금을 가지고 조각을 하던 직업의 소유자여서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습성을 타고 났기 때문에 수행의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부처님께서 젊은이를 이끌고 활짝 핀 연꽃가로 가셨다. 젊은이에게 이 연꽃가에 앉아서 아름다운 연꽃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집중해 보라고 하였다. 젊은이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연꽃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마음에 큰 기쁨이 일면서 금세 집중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연꽃에 온 마음이 팔려 환희함에 빠져있을 때였다. 갑자기 연꽃의 상심하던 연꽃들이 금세 시들어 버리는 것이었다. 젊은이의 마음에 순간 큰 깨달음이 찾아왔다. 자신의 몸과 마음뿐 아니라 생겨난 모든 것은 무상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은 필경 후회되는 것으로 집착할 게 없다는 것이다. 똑같은 무상을 깨닫게 하는 데에도 사리불과 부처님의 방법에는 이렇게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가지 방법만을 가지고는 각각각색의 중생을 다 인도할 수 없다는 점과 인도자는 수행하려는 자의 근기를 잘 파악한 다음 수행방법을 내려주어야 한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제 열 <유마선원장>

“삼라만상이 모두 부처”

“道는 똥 오줌에 있다”...자연 흐름에 순응해야

격은 비슷하다. "무엇이 부처입니까"라는 물음에 운문은 "뒷간의 똥막대기!"라고 잘라 말했다. 이 말은 경건한 불교도뿐만 아니라 불교에 적대적이거나 무관심한 대중들조차 놀라게 할 것이 틀림없다. 선이 파격적이라고 해도 이토록 지독할 수가 있는가. 일찍이 우리는 운문의 파격함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어느 설법에서 이렇게 말했다. "부처가 태어날 때 어렵 걸음을 걸으면서 천상천하(天上天下) 유아독존(唯我獨尊)이라고 뇌까렸는데, 내가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한 몽둥이로 때려잡아 죽이든 개에게 던져 주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쯤 천하가 태평할 것인데..."

이런 패풍과 우상파괴도 지금의 공안에 비하면 오히려 온건한 편이다. 똥막대기가 무엇인가. 뒷간에 두고 똥을 퍼내거나 저울 때 쓰는 막대기라는 사람도 있지만, 나는 예누리없이 똥을 누고 난 다음 밭을 훑는 쇠개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화장지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나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신문지를 꼬깃꼬깃 구긴 다음 뒷처리하는 것이 낯설지 않았다. 신문기름에 영달이 시커멓게 칠여 있던 아이들과 놀던 기억이 새롭다. 신문지는 그래도 양반이었다. 새끼똥을 걸어두고 온식구가 공용으로 쓰거나 심지어 옥수수 껍질을 이용

재소는 귀하고 똥은 비천한가.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면 생명뿐만 아니라 죽어도 아름다운 덕(德)이다. 재화가 한정되어 있고 복작대는 사회에 내 의자 하나라도 거뒀다면 숨쉬기가 훨씬 낫지 않겠는가. 또 육신이 썩어 개미밥이 되거나 까마귀들에게 공양된다면 그 또한 보람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장자는 말한다. "사는 것이 죽는 것이고, 죽는 것이 사는 것이다(方生方死, 方死方生)." 요컨대 죽음은 탄생과 더불어 있고 생사(生死)는 동일한 과정의 양면이다. 비극은 이런 자연을 통체적 시스템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자기중심에서 바라보는데서 생겼다. 인간의 자만과 교지(狡智)로 하여 본래 평등하던 자연이 선(善)과 악(惡), 미(美)와 추(醜), 시(是)와 비(非)로 찢겨 나갔다. 인간세의 권모와 술수, 전쟁과 혼란은 바로 그 인간의 무지와 편집증이 몰고온 폭력의 결과이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불교와 수학

30

자기화

김용운

<임제록>의 마지막장 행록(行錄)에는 임제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다. 그가 대오의 경지에 도달하는 데는 위대한 스승과의 만남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진화(和尙)은 처음 황벽의 제자였고 열심히 수행했다. 그것을 알아차린 수좌(首座)가 "너는 여기에 와서 3년이 되었다. 아직 황벽화상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불법의 근본(根本)에 대해 직접 황벽의 가르침을 받아 보라"고 했다. 젊은 임제는 그 길로 황벽화상을 찾아 그것을 물었다. 그러나 미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황벽은 몽둥이로 임제를 쳤다. 기가 죽어 돌아온 임제를 보고 수좌가 물었다. "가르침을 제대로 받았는가?"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제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몽둥이를 맞았습니다" 그러자 수좌는 다시 한 번 가서 가르침을 청해 보라고 했다. 임제는 다시 황벽을 찾아 뺨과 길을 물었더니 다시 몽둥이를 맞았다. 이런 식으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35

로 세 번 가서 세 번 맞은 것이다. 드디어 임제는 수좌에게 "세 번이나 가서 세 번을 맞았는데 아직도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 없으니 인연이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곳으로 가야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수좌는 "그래, 할 수 없지. 그러나 이곳을 떠나기 전에 황벽화상에 인사를 드리고 가라"고 말했다. 임제는 황벽화상을 찾아가 떠나는 인사말을 했다. 그것을 들은 황벽화상은 "다른 곳을 찾지 말고 대우(大愚) 선사를 찾아가라"고 일렀다. 임

제의 가르침은 명백해졌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대우는 임제의 딱살을 잡고 "무어라고. 이 못난 예승이가 방금 무엇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우는 소리를 한 눈이 이제는 황벽의 가르침이 명백하다고? 무엇이 명백한지 말해 봐!"라고 소리쳤다. 임제는 대우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세 번 치며 대우를 밀쳤다. "당신의 스승이 황벽이 아닌가! 내가 알 바는 아니다"

임제는 문제를 파악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고 자신도 확고한 문제

“물가의 말에게 억지로 물먹일 수 없다” 문제의식 가져야 암기지식 자기화 가능

제의 황벽의 말대로 대우를 찾아 나섰었다. 대우는 찾아온 임제에 대해 물었다. "어디서 온 것이냐?" "황벽화상으로부터 왔습니다" "황벽의 가르침은 무엇이었던가?" "나는 그에게 세 번 불교의 근본 의를 물고 세 번 몽둥이로 맞았습니다.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자 대우는 "황벽은 그토록 노파와 같은 마음으로 너를 가르치려 했는데(老婆心切) 굳이 나에게까지 올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이 순간 임제는 대우를 얻고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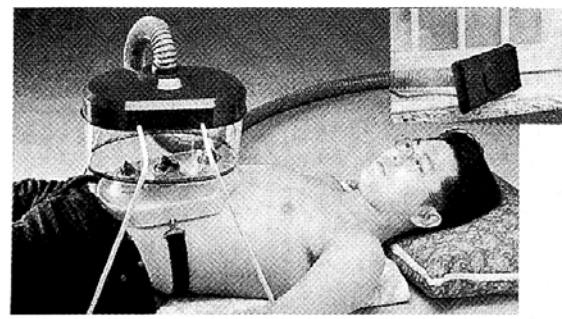
의식이 없었다. 그가 황벽을 찾아가려 할 때 대우가 구한 것은 일반적인 답이 아니다. 그 자신의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었다. 말하자면 확고한 자신의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이다. 그것을 알아차린 황벽은 그에게 몽둥이질을 한 것이다. "말을 물가에 데리고 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물을 마시는 일반인은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 유물리드는 그 이전에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던 기하학적인 지식을 집대성하여 완벽한 논리체계로 엮었던 희망 최고의 학자였다. 일반적으로

그가 역은 논증기하학을 도형의 학문으로 여겼으나 기하학은 오히려 모든 학문의 기초이며 특히 왕에게는 필수적인 교양이며 제왕학(帝王學)의 첫째 과목으로 여기고 있었다. 유물리드는 왕자의 가정교사 즉 사부(師父)였다. 가정교사치고는 당대 최고의 수준의 사람이다. 그러나 왕자는 그것이 어려워 잘 이해하지 못했다. 왕자는 견디다 못해 유물리드에게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좀 쉽게 배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유물리드는 "기하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라고 단호히 말했다. 왕자에게도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뜻이다. 상대가 왕자가 아니라면 틀림없이 황벽화상이 임제에게 한 것처럼 몽둥이 세례를 주었을 것이다. 남이 제시해 놓은 수학의 내용은 누구나 건전한 이성과 기초 지식만 있으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한낱 암기에 불과하며 자신의 경지를 얻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훌륭한 스승으로부터 기존의 수학 지식을 얻어도 그것을 자기화하기 위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논리를 초월하는 불교와 논리를 끝까지 고수하는 수학은 최고의 인식 수준에 도달하는 길은 다르더라도 자기화 과정에 스스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만은 공통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바라밀쑥뜸기를, 더욱 편리하고 효과있게 개선시켜, 쑥뜸효능이, 2배로 상승된,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 보급중!

건강장수쑥뜸을 뜨게되면 유난히 많은 쑥연기가 나옵니다. 이 연기는 창문을 열어놓거나 환풍기를 설치해도 잘빠지지 않고 가구나 옷등에 냄새가 깊이 배어, 쑥뜸을 계속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파트 등에서는 더욱 어렵다고 하며 겨울철에는 추워서 창문도 못열고 하다보니 쑥뜸연기로 인해 쑥뜸을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분들을 위해 이번에 새로 개발된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는 쑥타는 흰 연기를 완전히 밖으로 배출시켜 쑥뜸을 지속적으로 뜨시는 분들로 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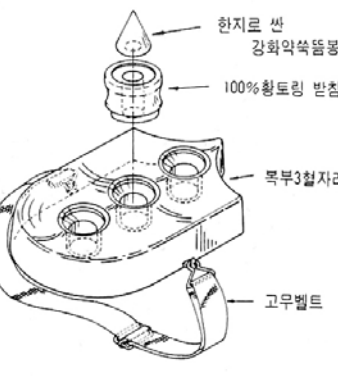
가격 : 쑥뜸연기 흡입 배출기(선택구입사양) : ₩ 60,000

건강長壽쑥뜸기

“뜨거운 고통과 큰 흉터를 남기는, “재래식 쑥뜸 요법의 세대교체 => 건강장수 쑥뜸기” 열풍!



◎ 인체에 병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주로 오장육부의 이상현상에서 오기 때문에, 이들 장기의 대부분이 몰려있는 배 주위의 3개 요혈 배꼽, 단전, 중완의 3개 혈자리만 잘 다스리면 웬만한 질병은 거의 다 완치시킬 수 있습니다.



◎ 하루 40분씩 복부의 단전, 배꼽, 중완 3개요혈에 장수쑥뜸을 뜨십시오... 평생건강을 보증합니다.

● 이런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
1) 사소한 질병이든 불치병, 난치병등 큰 병이든 몸에 한가지 병(病)이라도 있어 그로인해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2) 지금 자신의 배를 만져 보십시오. 배가 차다고 느끼십니까?
3)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갖고 계십니까?

◎ 보급가격 : ₩ 120,000 ● 전국 대리점 및 취급점 모집
제조원 : ①성지관음회(부설: 바라밀건강연구원)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0335)34-9490, 34-9491 야간(0342)706-3060